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방장법어 <요지>

“이름없는 풀이 병에 쓰이듯”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참 뜻은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름없는 풀이 병에 쓰이면 약초가 되듯이 인생을 약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님일 것입니다.

佛是自心作(불시자심작) 道亦非有爲(도역비유위) 深溪水難澆(심계수성원) 山高月色還(산고월색재)

부처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도 또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네 깊은 시내에는 물소리가 멀리 들리고 산이 높으면 달 빛이 늦게 비추오는 법이네

“모든 만물 한집을 이루었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二五四二四八日(이오사이사팔일) 天下萬物共一家(천하만물공일가) 一盡天下大一體(일성천하대일성) 萬古不滅永不昧(만고불멸영불매)

2542년 사월초파일에 천하 모든 만물이 한집을 이루었다 한 소리 천하가 크게 한소리를 이루었으니 만고에 멸하지 않고 영원히 매하지 않는다.

“사방 둘러봄은 한생각 일으킴”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周行七步(주행칠보) 已入邪路(이입사로) 目顧四方(목고사방) 開眼尿床(개안뇨상) 指天指地(지천지지) 有甚巴鼻(유심파비) 唯我獨尊(유아독존) 團圓什麼(도개심마) 일곱걸음 걸었다는 것은 이미 그른 길로 들어섬이요 사방을 둘러 보았다 함은 눈 뜬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킴이라 하늘을 가르키고 땅을 가르킴은 무슨 까닭이 있으며 '유아독존'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珊瑚枕上千年淚(산호침상천행루)여 半是思君半恨君(반시사군반한군)이라 산호 베개로 흐르는 천줄기 눈물이며 절반은 그대를 사모함이고 절반은 그대를 원망함이라.

“무엇이 세존의 진면목인가”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세존은 태평시절의 간사한 도적인가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인가 둘 다 옳지 않으니 무엇이 세존의 진면목인가 塞外將軍令(새외장군령)이요 關中天子勅(궁중천자칙)이로다 전쟁터에서는 장군의 명령이요 궁중에서는 천자의 조칙이로다

또 이르되,

丈夫自有衝天氣(장부자유충천기)하니 莫向如來行(막향여래행처)하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여래의 가진 곳을 향하여 가지마라

오랜만에 ‘방화없는 초파일’

○... 작년까지 봉축기간에는 서울 인근을 비롯해 적지않은 지역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동국대 코끼리상장엄물이 불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 실직자와 복한동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눈길을 끌었다. 각 복지단체들의 성금모금과 후원인 모집 캠페인과 봉축기간동안 이웃돕기·양로원 방문 등 행사가 풍성했던 것. 회향마당에서의 촛불기원 '함께 이겨 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등 자비의 실천 의지는 축제의 마당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불자들의 신행지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불전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봉축 프로그램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됐다. 자비실천단을 구성, 국난극복을 위한 오제무지 실시라든가 소외된 이웃과 복년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헌혈 캠페인, 고아원등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은 청년불자들의 신선한 봉축의지를 심본 보여 주었다. ○...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에 일부 사람들이 많은 신도들을 동원해 참가 불자의 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지만 단위 사람들의 참여도는 낮았다. 더구나 종단협소속 전체 종단이 다 참여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때문에 신도가 많은 사찰 위주로 축제가 진행된 느낌을 주어 소규모 참가 사찰들이 상대적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경제난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봉축행사가 치러졌지만 행사의 다양성은 기대에 못미쳤다. 봉축위가 기획

봉축결산 기자방담
36일간의 봉축기간(4월1일~5월5일) 동안 전국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봉축 행사가 펼쳐졌다. 각 사찰은 경제난으로 인한 '봉축 특수'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예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등을 밝힌 신도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일부 사찰들은 등감을 인화하기도 했지만 등을 켜는 신도의 발길을 잡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경제난 속에 치러진 금년 봉축 행사를 결산해 본다.

족의 전통문화 계승하는 차원에서 더욱 짜임새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의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제의 의미를 최대화 할 방안을 찾는 것은 올해도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셈이다. ○... 올 봉축기간동안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불교계의 의지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광주,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타종교 성직자의 강연을 마련하고 서울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평화방송에 출연해 부처님 오신 뜻을 설명한 것 등은 매우 성숙된 불자들의 종교관을 반영시킨 것. 이같은 불교계의 움직임은 전례 없이 대통령이 봉축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연등축제에 해가 갈수록 외국인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올 연등축제에도 5백여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종로일대에서 펼쳐지는 봉축 잔치를 구경했다. 불교계와 정부가 연등축제를 특수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보인 것이라 평가다. ○... 불교TV가 연등축제를 지방과 연계하며 실황 중계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불교TV뿐 아니라 일반 공중과 방송도 연등축제를 실황 중계할 수 있도록 종단적 노력을 기울여 국민축제로서의 연등축제 위상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다. ○... 봉축위를 중심으로 '왜색등 안달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 왜색등을 불을 밝혔다. IMF시대에 갑자기 등을 바꾸기에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내년부터 점차 우리 전통 등 달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외국인 선호 봉축행사 놀이마당·제등행진順
봉축위 행사동참 외국인 234명 설문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봉축행사는 놀이마당(100명), 제등행진(96명) 연등만들기(54명) 등이며, 봉축행사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흥보매체 다변화, 외국인 놀이마당 신설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봉축위원회가 26일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설문지는 국적, 선호행사, 봉축정보 수렴방법 등을 묻는 총 8개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118명) 유럽인(44명) 등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일본인 중국인 스리랑카인 등 아시아인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또 응답자중 134명이 주한 외국인이며 순수 관광객은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봉축행사 해외홍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들은 주로 신문·방송(66명), 서울시 관광정보센터(22명) 등을 통해 봉축행사 정보를 제공받은 반면 한국관광공사(6명), 여행사(0명) 등에서 관광정보를 제공받은 외국인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봉축위원회가 지금껏 봉축행사 관련 해외홍보를 의존해 왔던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행사' '제등행진을 일찍 시작할 것' 등을 권유했다. 봉축위원회는 "내년에는 코리아 헤럴드, 아리랑TV 등 국내 영자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봉축행사 관광패키지로 개발, 외국인 놀이마당을 마련하는 등 주한·해외 외국인들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경제난 속 많은 사찰이 등감을 내렸지만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의 등을 걸었다. 경제위기는 왜색등을 전통등으로 바꿔 디는 데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 대부분의 사찰이 기존의 왜색등을 다시 걸기도 했다

사찰 등 예년비해 줄어 IMF 실감 실직자·복합기, 종교벽 허물기 '눈길' "거리축제 이대로 좋은가" 찬반 양론

한 일부 행사들은 불자들과 시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지방이나 각 단위 사찰들이 기획한 봉축행사는 의례적인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위축과는 상관 없이 포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행사 기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해마다 "시민들의 길을 막고 거리 축제를 벌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대두됐듯 올해도 이에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 갖는 축제이고 우리 민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 건립
1600년만에 피어나는 자비의 꽃봉오리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가 자비광명의 실천을 위해 일산신도시에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은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자비도량을 구현함은 물론 나라의 위기를 구국대불사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경제위기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립기공식 및 축하공연
일 시 : 1998년 5월 16일(토)
기공식 15:00, 축하공연 16:00~18:30
장 소 :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동국대 실험동/고양 기구공단 입구)
사 회 : 김병조, 홍진경
출 연 : 신영희, 최진희, 설운도, 김홍국, 김혜연, 이지훈, 김수근, H.O.T, 태사자, O.P.P.A
행사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안내
역사적인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2천만 불자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02)260-3300
입금계좌 : 예금주 동국대원
국민은행 068-01-0373-353
계일은행 107-10-119210
조흥은행 313-03-002943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건립행사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동국대학교 총동맹회, 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 대한불교, 시대불교, 고양시, 파주시 시민연합회, 국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